

[특집] 국어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기, 가정의 국어 교육

진선희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1. 영유아기 국어 교육에 대한 오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령기 이전의 국어 교육으로 문자 언어에 집중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년 입학생 중 많은 아이들이 글자를 소리 내어 읽을 줄 안다. 초등학교 국어과 수업을 받기 이전에 글자를 읽을 수 있어서 공부를 잘할 준비를 모두 갖추었다는 뿌듯함을 안고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해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른 국어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말이다. 글자 읽기나 쓰기는 영유아기에 반드시 길러야 할 국어 능력은 아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에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어 교육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영유아기 가정의 국어 교육

국어 교육을, 말(음성 언어)을 주로 다루는 듣기·말하기 교육과 글(문자 언어)을 주로 다루는 읽기와 쓰기 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

지만 말과 글은 일상에서 흔히 분리하여 다루지 않는다. 특히 영유아기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음성 언어의 습득과 문자 언어의 습득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아기에 가장 먼저 ‘듣기’ 능력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듣는 능력이 부족하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습득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또 음성 언어 발달의 장애는 문자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문자 언어 읽기 과정에 대한 성인과 입문기 아동의 차이점이다. 성인은 문자 언어를 시각적으로 지각하면 곧바로 그 의미를 구성한다. 이에 반해 입문기 아동은 기호로 된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꾸어 청각적 자극으로 바꾸면서 의미를 구성한다. 소리로 들어야 의미 구성이 되는 단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영유아기에 음성 언어로 된 어휘나 문장의 의미 구성 능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입문기에 이르러 읽기와 쓰기 등 문자 언어의 의미 구성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유아기 교육은 매우 통합적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활동은 국어 교육과 관련이 있다. 영유아기에 습득하는 모든 지식이나 지각 능력이 모두 다 국어 능력 획득에 작용한다. 굳이 국어 교육을 분리하여 설명하자면, 영유아기에는 구두 언어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단순히 구두 언어 교육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의 구두 언어 발달은 문자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지 능력과 상상력과도 직결된다.

듣기·말하기, 문학 교육, 읽기·쓰기를 각각 ‘음성 언어 중심 국어 교육’과, ‘문학적 상상력의 교육’ 그리고 ‘문자 언어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 음성 언어 중심 국어 교육

2.1.1. 영아기

아기의 첫 언어는 울음이다. 영아가 울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부모는 울음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혼자 울도록 오래 내버려 두거나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이해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도 울음이나 재채기, 트림 등의 소리를 낸다. 이때 부모가 옆에서 적절한 말이나 소리로 대응을 해주거나 안아 주는 등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인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익히는 과정이면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길이다.

이후 행복하거나 만족한 느낌이 들 때 주로 모음과 관련되는 목 울리기(cooing)를 하고, 생후 3~4개월이 되면 다양한 모음과 자음으로 웅알이(babbling)를 시작한다. 생후 6~9개월이 되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반복되는 표준적 웅알이(canonical babbling)를 한다. 이 시기에도 부모나 가족이 아기의 웅알이를 들어주고 대꾸하며 반응을 보이는 등 이야기를 나누는 교감이 필요하다.

생후 12~18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영아들은 ‘엄마’ 또는 ‘아빠’를 지칭하는 어휘를 말한다. 처음에는 자음에서 시작하여 모음으로 끝나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기도 한다. 가족의 호칭이나 ‘멍멍’, ‘야옹’ 같은 친숙한 동물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만 2세 무렵까지 사용 어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영아가 음성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말소리를 내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러 소리 간의 차이를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소리와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말소리 간의 차이와 그 의미 차이를 지각하고 소리 내는 능력은 가족과 상호작용하거나 가족의 언어생활에서 영향을 받으며 습득한다.

만 2세경에는 두 개의 어휘를 연이어 문법적 관계를 가진 문장으로 발화한다. 이때부터 보다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 다만 조사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등을 생략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의 아동 언어를 전보문(telegraphic speech)이라고도 한다.

아동이 말을 배우는 시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가 말을 배울 때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일정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그 기대에 따라 말하기 과정이나 태도를 학습하면서 성장한다. 즉, 영유아가 말을 할 때 부모나 가족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눈을 맞춰 웃어 주고, 안아 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준다면 그에 맞추어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 일관성이 없는 반응을 보이면 말하기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말하기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즉,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갖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아이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실패와 좌절을 자주 경험하게 됨으로써 특정 행동에 의욕을 잃고 회피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유아기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말하기 불안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평생 동안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리거나 말을 할 때 더듬는 등 불안증을 보이기도 한다. 말하기 불안이란 ‘말하기 과정에서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함을 겪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말한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고이거나, 안절부절못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면 말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더듬게 되어 말하기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말하기 불안을 조금씩은 겪을 수 있지만, 말

하기 불안 증세가 심하면 의사소통 장애뿐만 아니라 학업 부진을 유발하게 되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학령 전 국어 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음성 언어 교육이다. 특히 말을 처음 배우는 영아기에는 그들이 내는 소리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가 크다. 부모와 가족의 관심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대화 등 말하기 상황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길러 자신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 준다.

2.1.2. 유아기

유아기에 길러야 하는 국어 능력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낱말이나 문장을 듣는 능력이다. 낱말이나 문장의 발음이나 의미를 구별하며 듣도록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또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 몸짓, 분위기를 잘 파악하여 내용과 의미가 무엇 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잘 듣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은 유아의 말을 잘 들어 줄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들으며 가끔 확인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주의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유아가 말을 할 때에도 귀를 기울여 청취하는 태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유아기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낱말이나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하되 듣

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하도록 한다.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대화의 시공간이나 상대의 연령 및 성별, 친소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한다.

유아는 말하고 듣는 경험을 통해 말하고 듣는 능력을 획득한다. 유아와 가족 친지 간 다양한 대화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유아기의 중요한 국어 교육 활동이다. 대가족이 모여 생활할 때는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유아의 대화 경험은 그만큼 더 풍부할 수 있었다. 옛날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할머니가 있고, 생활의 장이 더 넓은 삼촌이나 고모가 있다면 더 다양한 대화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대화 장면을 볼 기회가 있다. 핵가족 시대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친지와 가족 행사에 자주 참여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사하고 대화하게 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풍부한 대화가 필요하다. 다정한 대화에서 자녀의 발음이나 어휘에 대한 교정 지도가 가능하며, 자유롭지만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이때도 아이가 대화에서 무시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후 말하기 불안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네가 뭘 안다고 나서니?”,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잠자코 있어.” 등의 부정적 반응이나 무반응, 부모의 기분에 따른 비일관된 반응이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아이의 평생 말하기 태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 듣기·말하기 교육, 특히 말하기 불안 증상의 예방을 위하여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말을 공감하며 끝까지 들어 주는

일이다. 가족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아이도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아이가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으음, 그래서?”, “그래.” 등의 반응을 보여 아이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하며 격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야기해 볼래?”, “더 자세히 말해 볼래?” 질문을 하거나 아이가 생각을 다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그리고 아이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부모가 그 내용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은 내용을 다시 진술하거나, 해석하여 다시 진술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기 아동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장난감, 생필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의 이름, 쉽게 볼 수 있는 생물과 무생물의 이름, 상품명이나 건물 및 다리의 이름 등을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 주고 정확한 발음으로 이름을 부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정보 그림책이나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실제 사물을 보며 이름을 부르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

유아기에는 부모가 동화를 들려주거나 읽어 주는 활동이 듣기·말하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동화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어휘를 듣고 발음을 구별하며 의미를 판별하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또 다양한 상황에서 즐겁게 낱말과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자연스럽게 동화의 내용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또 유아에게 흥미 있고 정서적으로 알맞은 동화를 읽어 주거나 들려주는 것은 몰입하여 듣는 태도나 능력을 길러 주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아이가 흥미를 가진 이야기나 동화를 선정하여 들려준다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가 동화를 읽어 주거나 들려줄 때 기계적으로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보다는 동화 속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강약, 어조를 조절하여 재미있게 들려주어야 한다. 유아용 동화의 대화나 설명·묘사 등에는 대체로 같은 문장이나 낱말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나 낱말이 나올 때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지 예측하게 하거나 따라 말하게 하는 등 참여하거나 행동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한다. 예를 들면, 〈아기 돼지 세 마리〉에서 늑대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여보내 줘.”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물론 아기 돼지들의 대답도 반복된다. 세 번째 나올 즈음에는 “늑대가 와서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아이에게 말해 보게 하여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듣게 한다.

몰입하여 듣는 능력은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태도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능력은 어른에게도 결여되기 쉽다. 하물며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아기에는 강제로 학습시킬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동화를 발견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다시 듣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인데, 아이의 요구대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어 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러한 몰입하는 듣기 태도의 근간은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대부분 형성되며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2.2. 문학적 상상력 교육

상상력은 국어 교과 내의 문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능력이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상징 기호이기에 국어 능력의 전반을 이루는 중요

한 요소이기도 하다. 유소년기의 상상력 발달은 언어 발달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학계의 보고를 유심히 볼 일이다. 언어 발달이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유아어 수준에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면 상상력 발달 속도가 더디고, 놓아는 때로 상상력이 매우 빈곤하거나 퇴화한다(허승희 외 1999, 189)고 한다.

상상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의 장을 확대하는 것과 언어적·비언어적 상징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화나 동시, 듣거나 말하며 즐기기, 극놀이 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2.1. 듣거나 말하며 즐기기

동요나 동시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유아기 때의 중요한 국어 교육 내용이다. 동요나 동시는 언어 사용의 정수(精髓)를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이가 언어 발달의 초기에 동요나 동시를 이해하고 즐기면서 획득하게 되는 언어 능력은 평생 동안 사용하는 언어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우리말의 가락과 빛깔과 향취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동시나 동요에 쓰인 아름답고 좋은 언어를 아이들이 익히고 그 재미를 느끼며 평생 아름답고 바른 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적합한 동요나 동시는 그리 길지 않고 단순한 것이 알맞다. 말놀이 수준의 동시·동요를 선택하되, 장면이 선명하고 같은 어휘나 문장이 반복되어 운율적인 호흡으로 언어를 구사한 동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동요는 시디(CD)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멜로디와 함께 즐겁게 반복적으로 들으며 따라 부르도록 한다. 동시는 부모와 함께 간단한 동시를 외우거나 말놀이를 하며 반복하여 읊조리도록 한다. 의성어나 의태어 등 동시에 담긴 내용을 몸으로 흉내 내어 보게 하거나

장면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 보는 것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동화나 동시를 반복해 듣기를 좋아한다. 이때 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줄거리를 확인하며 이야기 속 세계를 상상하며 알아 간다. 아이는 자신이 알아낸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때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의 전체와 부분을 결합하고 경험을 체계화하거나 확대하고 재구조화한다. 이러한 이야기 이해와 표현 경험은 이후 창조적 능력으로 이어진다.

가정에서 그림동화나 동시를 읽어 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읽어 주는 부모도 스스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읽어 주는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의 흥미를 오히려 반감할 수 있다.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그림동화를 읽을 때는 무릎 위에 앉히거나 몸을 맞대고 앉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한 정서적 일치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림동화를 읽어 주기 전에 표지 그림이나 책 제목, 삽화기와 저자를 짧게 소개하면서 내용을 예측해 보게 하거나 등장인물을 상상해 보게 하여 함께 읽을 그림동화에 흥미를 갖게 한다. 읽는 이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은 적합한 목소리와 편안한 호흡으로 읽어 주되,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 주는 것이 좋다. 아이의 언어 수준과 상상력, 주의 집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긴 문장은 축약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문장은 생략할 수 있으며 어려운 낱말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쳐 읽어 줄 수 있다. 읽는 이가 일방적으로 읽어 주기보다는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 등 반응을 감지하며 읽어 주는 것이 좋다.

2.2.2. 놀이하기

가정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를 하게 하는 것도 영유아기의 중요한 국어 교육 활동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도와

주고 모델이 되어 주는 성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성인이 놀이를 먼저 시작해 주고, 놀이 활동을 격려해 주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말을 배우고 상상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영유아의 부모와 형제, 조부모, 삼촌, 사촌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주변 성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이 말하고 상상하는 놀이의 시공간이 될 수 있다. 알고 있는 그림동화의 등장인물을 흉내 내거나, 만화 영화의 내용을 흉내 내거나, 시장·가게·목욕탕·병원 등의 시설에서 경험한 것과 상상한 것을 흉내 내며 맡은 역할에 알맞은 대사를 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 등이 모두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아이들이 종이 인형 놀이, 소꿉놀이, 가족놀이, 병원놀이, 학교놀이, 시장놀이 등을 할 때 성인이 함께 하거나 방법을 알려 준다면 아이들은 더욱 흥겹게 자신의 국어 능력을 키워 갈 것이다.

2.3. 문자 언어 교육

본격적인 문자 언어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이루어진다. 유아기까지의 음성 언어 발달은 학령기의 문자 언어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아기의 음성 언어 교육은 문자 언어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문자와 직접 관련된 읽기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1. 읽기

유아기에 주로 보는 그림책은 여러 종류가 있다. 생물과 무생물, 상품이나 인공물 등의 그림과 그 이름이 적힌 그림카드형 정보 그림책,

그림만으로 혹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림동화, 그리고 동시 그림책도 있다.

입문기 읽기 능력의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그림 읽기 단계이다. 그림 읽기 단계는 먼저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은 그림 읽기, 즉 그림의 이름을 말하거나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림의 행동을 말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형성하는 그림 읽기로 나아간다. 이때는 그림을 읽으면서 대화체로 말하거나 독백 형식으로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문어식 읽기를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문어식 읽기와 말하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말하거나 단어나 내용을 암기하여 읽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글자를 읽는 단계이다. 글자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소리 내어 읽으며 의미를 형성한다. 글자나 단어를 중심으로 읽기를 시도하며 잘 알지 못하는 글자는 생략하거나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문장과 거의 유사하게 읽기도 한다.

유아기는 글자를 읽기 이전 단계로 글자를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읽기 관련 지식과 지각력이 발달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음성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지각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부모와 함께 그림책이나 그림동화를 읽으며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의 내용에 알맞은 ‘글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리고 책이란 ‘읽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유용한 정보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유아기의 읽기 교육이다.

그리하여 유아기에는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유아가 알게 해야 한다. 책을 드는 방법, 책장을 넘기는 방법, 책의 편리함과 즐거움 등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유아기의 읽기 교육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동화를 그림 중심으로 읽으며 책장을 넘기고, 그림 중심으로 대화하며, 때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된다.

그와 더불어 가정의 문식 환경¹⁾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족이 책이나 글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물건을 쓴 포장지의 글자를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사전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물건 사용 설명서를 읽으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등 글자를 읽는 것이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한 일이며 재미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또 그림책이나 그림동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정리하며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3.2. 쓰기

쓰기 능력 발달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굵적거리기 단계이다. 이때는 글자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나 세로선이나 가로선을 그린다. 두 번째는 한두 개의 자형이 우연히 나타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한두 개의 글자 형태를 쓰는 단계이다. 네 번째는 가끔 자모의 방향이 틀리지만 글자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계, 다섯 번째는 단어 쓰기 단계, 여섯 번째는 문장 쓰기 단계이다.

유아기는 본격적인 문자 쓰기 이전 단계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으면 쓰기 능력 발달의 두 번째 단계 정도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문자 쓰기 교육

1)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문식력(literacy)이라고 하며, 문식력과 관련되는 모든 환경을 문식 환경이라고 부른다. 즉, 문식력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 물리적으로 책과 잡지 등을 비치하는 것 등이 유아의 문식 환경에 해당된다.

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글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며 말과 글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글로 써서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가족끼리 메모지에 의견을 적어 소통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아 읽으며 서랍이나 정리함 등에 부모가 직접 이름을 써서 붙이는 모습, 개인의 책이나 가방 등 물건에 가족 개개인의 이름을 써 붙이는 모습 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 유아 자신의 소지품에 본인의 이름을 부모가 대신 써 주고 따라 읽어 보도록 하는 등 쓰기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또 글자를 쓸 수 있는 손과 손가락과 팔의 협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는 아니지만 글자 흉내를 내보는 것도 필요하다. 물건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은 모두 문자 쓰기를 위한 준비 단계의 교육이 된다.

문자를 쓸 수 있는 다양한 도구 활용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유아기의 문자 교육 내용이다. 연필, 색연필, 사인펜 등의 도구를 바르게 잡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자세를 가족이 보여 줌으로써 학령기에 문자 쓰기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참고문헌

- 비고츠키 저/팽영일 옮김(1999),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 창지사.
신현재 외(2009), 《아동문학의 이해》, 박이정.
신현재 외(2009), 《초등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진선희(2013), 《그림책을 읽다》, 한우리문학.
허승희 외(1999), 《아동의 상상력 발달》, 학지사.